

지카바이러스 예방 이렇게

수혈·성적접촉 등 간접 전염 가능성... 특별한 치료법 없어 조심해야

지난 해 메르스(MERS)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중남미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연일 매스컴에 올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한국에 지카바이러스의 창궐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고 있지만 해외로부터 국내로의 감염환자 유입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이에 전북도는 4일 시·군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회의를 갖고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감염병 '관심 단계'로 지정하고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책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지카바이러스의 병원체와 감염경로는 어떠한가

지카바이러스의 주된 매개체는 국내에는 없는 '이집트숲모기'이나 국내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도 잠재적으로 낮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흰줄숲모기가 지카바이러스를 보유한 사례를 확인한 적은 없다.

국내 흰줄숲모기는 국내에서는 4월경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모기로 국내 모기의 2~3%의 적은 개체밀

도를 갖고 있다. 국내 서식지는 서늘한 기후를 가진 북한산국립공원 등지에서 발견했다는 발표가 있으나 전국 모든 숲 지역에는 서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간접적인 전염으로는 수혈에 의한 전염이나 성적접촉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이 추측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여행 이후 최소 1개월이 지난 시점 검사를 통해 헌혈이 가능하므로 수혈경로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는 최근 지카바이러스 유행 지역을 다녀온 관광객의 경우 성행위를 자제할 것과 부득이한 경우 콘돔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증상과 잠복기

지카바이러스에 의한 증상은 임상적으로 2일에서 7일정도 소요되며 최대 잠복기는 2주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증상이 3일에서 7일정도 경미하게 발생되고 약 80% 정도는 특별한 증상 없이 감염된다.

나타나는 증상은 홍반성구진성 발진을 동반한 갑작스런 발열이나 관절통, 결막염,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오며 합병증으로 소두증 증상을 유발하고 길랑바레증후군으로 알려져 있는 근육마비 증상이 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 증상이 그렇듯

이 특별한 치료법은 없으며 충분한 휴식이나 진통제, 해열제 등으로 통증을 억제하는 방법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여행 위험지역은 어디?

지난 달 29일 ECDC에 따르면 중남미 16개국(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마르티니크,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유행하고 중남미 10개국(파푸아뉴기니, 니카라과,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볼리비아, 세인트마틴섬, 수리남, 온두라스,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네덜란드령 퀴라소)에서 산발적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의 태국도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아프리카의 카보베르데도 유행국가로 지정됐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나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에서는 최신 발생국가 현황을 변동 즉시 업데이트 중이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지카바이러스 감염경로와 증상에 대해 알고 예방 및 권고 내용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3일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직원들이 물류창고에 쌓인 택배상자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전주시보건소, 지카바이러스 긴급 방역반 편성

전주시가 최근 남미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방역진력 투입에 나섰다.

전주시보건소는 지카바이러스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달 중 긴급 방역반을 편성에 지하실 및 정화조 등 모기 서식지 우려 지역에 대한 방역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카 바이러스(덴기열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Flavivirus 계열)를 보유한 모기에 물려 생기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자의 약 80%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불현성 감염이다.

주요 증상은 잠복기(2일~14일) 후에 3일~7일 정도 감염반점구진성 발진을 동반한 갑작스런 발열이 있고, 현재 '관심 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영재기자

고교 동창 살해 암매장 20대 무기징역

전주자립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4일 동창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행진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신모(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 10명 중 7명에게 징역 3년6월~35년을 선고하고, 3명에게 징역 2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 등 2명에 대해 사형을 강모(28·여)씨 등 2명에 대해 무기징역, 박모(20)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7년, 박모(18)군 등 3명에 대해 징역 5년, 단기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연인 사이인 신씨와 강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24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은행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신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조모

(당시 25세)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이틀남 걸간 합양의 한 야산에 풀과 나뭇가지로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용주 기자

상점서 물품 훔친 50대 '덜미'

군산경찰서는 4일 상가에서 스포츠용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백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3시30분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피부관리실에 들어가 베드민턴 라켓 등 14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백씨는 문물공사 영업을 하러 들른 상가에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스포츠 용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노영 기자

택시 승객 분실 핸드폰 대량매입 거래 20대 구속

택시에서 승객들이 분실한 핸드폰을 택시기사에게 사들여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관역수사대는 4일 택시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매입한 혐의(상습장물취득)로 김모(2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주 일원 택시승강장 주변에서 속칭 '흔들리' 수법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한 달 평균 30여대씩 총 510대의 분실 휴대전화를 (2억 5000만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노영 기자

기사제보 288-9700

전주 미래 100년 이끌 산업 기틀 다진다

탄소·3D프린팅·농·생명·스마트미디어·드론산업 육성

전주시가 무인비행기(드론)산업과 스마트미디어산업 등이 포함된 미래 먹거리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기로 했다.

전주시는 올 한해 전주의 미래 100년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산업으로 탄소와 3D프린팅, 농·생명, 스마트미디어, 무인비행장치(드론)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용역추진 방향 검토 및 예산확보를 등을 거쳐 올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단위의 종합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은 올해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며 따른 것으로 시는 탄소와 3D프린팅, 사물인터넷(IoT), ICT융합, 항공우주산업 등 5개 신성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전과

추진방향 등을 정립하고 분야별 추진 전략 및 사업계획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대한민국 대표 탄소산업 거점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 탄소밸리 구축(1991억원)과 탄소소재 활용한 응용부품(제품)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메가탄소밸리 구축(5085억원), 탄소소재 벤처 창업 지원, 7개국 12개 연구소와 국제공동연구, 탄소특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달 중 문을 여는 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시범센터와 지난해 정보통신진흥기술센터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3D프린팅 기반 탄소 융복합소재·장비 개발사업(2016년~2019년, 국비 40억) 등을 통해 3D프린팅산업을 지역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생명과 SW(소프트웨어)산업 등의 융합을 특화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R&D 및 제품상용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농생명 SW 융합클러스터 구축에도 힘쓰기로 했다.

시는 또 디지털 사인지(Digital Signage)산업의 시장 확대에 따라 영상·조명·IT를 결합한 차세대 첨단 융복합산업 분야인 스마트미디어산업을 육성하고, 무인비행장치 시범공역 선정에 따라 지역의 ICT기술력과 기업의 상용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인항공기 미래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무한 성장 잠재력이 될 청년경제 육성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창업 등 경제활동에 대한 꿈을 자유롭게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아지트 공간인 (가칭)청년상 상하이터를 조성해 청년들의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미래 비전화 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마음]

그 언제나처럼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걸을 지켜드리는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전북은행